

서 평

Donald Filtzer.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of Modern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1941* (Pluto Press, 1986)

Vladimir Andrie. *Workers in Stalin's Russia: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 in a Planned Economy* (Harvester, Wheatsheaf, 1988)

Hiroaki Kuromiya. *Stalin's Industrial Revolution: Politics and Workers, 1928-193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급격한 사회주의적 산업화 과정 속의 노동계급: 스탈린 시대 노동사에 관한 80년대 서방학계의 몇몇 연구성과들

한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I. 서 론

80년대 후반 소련에서 진행되었던 페레스트로이카와 러시아에서의 그 후의 사태전개는 스탈린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스탈린 체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아래에서의 소련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라는 것은 이제 막을 내린 소련사회 전체의 성격과 그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변화의 시도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소련의 외부에서 스탈린주의를 보아 온 시각은 - 스탈린체제를 사회주의 건설의 모범적 사례로 옹호해 온 극소수 세력의 평가를 제외한다면 - 대체로 네 갈래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트로츠키주의자들 및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으로서 스탈린 치하의 소련을 타락한 노동자국가, 관료지배국가, 국가 자본주의 등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들의 견해는 한동안 서방의 스탈린주의 이해를 지배하다시피 한 것으로, 소련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던 많은 비(非)사회주의자들도 이를 기꺼이 수용하였다. 둘째는 냉전의 성립 이후 한동안 맹위를 떨쳤던 전체주의론의 시각이다. 전체주의론은 물론 파시즘과 공산주의 사회를 함께 묶어 다루기는 했지만 소련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는 강경한 반공주의와 직결되어 있었다. 셋째는 스탈린정권의 정책 및 이와 더불어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로 산업화, 근대화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폰 라우에, 거센크론, 에드워드 헬릿 카 등의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각은 강경 반공주

의가 보여 주는 편협한 시각을 교정해 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와 비자본주의 사회 각각의 내적 구성 및 역사발전경로의 구체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넷째는 60년대 후반부터 싹이 터서 특히 70년대 이후 소련사 연구방향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킨 이른바 수정주의의 시각이다.

소련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은 맹목적 반공주의 혹은 전체주의론에 입각한 소련사 연구경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서, 스탈린 체제의 성격을 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되었다. 수정주의 내에도 세부적으로 여러 갈래가 있기는 하지만, 수정주의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스탈린체제가 볼셰비키혁명의 직선적인 발전의 결과였음을 부정하고 20년대의 소련은 비교적 열린 사회로서 사회발전의 방향에 관해 복수(複數)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소련 사회의 유일한 선택지가 스탈린 한 사람에 의한 전일적 지배가 아니었다는 점을 전제하게 되면서 연구자들은 볼셰비키 당내에서의 노선논쟁, 다양한 사회세력의 동향, 볼셰비키 정권과 각 사회집단의 관계 등의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련사 연구는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이른바 크레믈린학(사회·경제 전반의 동향에 대한 고려를 무시한 채 소련의 최고정치 지도자들의 동향에 대한 연구에 전적으로 매달리던 작업경향)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문화사, 사회사 등 좀더 폭넓은 주제를 향해 열리게 되었다. 서방학계에서도 소련의 사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연구자들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연구대상을 일단 적대시부터 하려 드는 자세를 극복하고 자기네와 다른 사회를 좀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들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 노동계급의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비롯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서 노동계급이 가지는 남다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자들이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무시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제도사적 관점에서 볼셰비키정권 혹은 스탈린 정권의 노동정책을 다루는 것에 그쳤고 이는 다시 이데올로기문제와 결부되어 찬반평가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노동이란 주제를 다루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극복되고, 작업장에서의 노사관계, 노동과정, 임금 및 노동시간 등을 비롯한 노동조건, 노동계급의 생활수준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특히 1970년대 이후 구미학계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사회사 연구의 영향 하에서였다. 유럽학계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시각에서 각 사회집단의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로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미국학계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소련사의 쟁점들에 대한 수정주의적 연구 경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스탈린 시대 소련의 변화를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한 쉴라 피츠패트릭의 일련의 연구성과들이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츠패트릭은 스탈린 체제라는 것은 소련사회에 새로운 엘리트계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 곧 정치세력의 필요와 사회집단의 요구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산물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스탈린주의 연구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다. 그녀는 특히 스탈린정권 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숙청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 개인의 폭압적 지배나 이데올로기적 맹신에 사로잡힌 한 정당 내에서의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엘리트층의 세대교체 및 출신계급교체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스탈린주의에 합리성을 부여하게 되었고 이는 노사관계의 변화를 비롯한 노동계급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II. 본 론

이 서평에서 다루어질 세 편의 저작은 80년대 후반 유럽과 미국학계가 내놓은 스탈린 시대 노동사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업적들이다. 이 세 편의 작업은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연구 분위기에서 태어났으며, 연구대상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스탈린 치하의 노동계급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에도 물론 없지 않았다. 노동계급의 구성, 수적 규모와 같은 문제는 소련경제사를 다룬 연구서들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외형상의 통계수치들을 제시하는 정태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노동계급의 존재방식을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시간적 변화 속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해 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 세 편의 연구는 국가 주도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채택된 노동관계 정책들의 의미, 노동계급과 다른 계급, 특히 경영자층과의 관계,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통제 양상의 변화, 노동계급의 구성변화, 특히 기술변화 및 작업과정 변화에 따른 노동계급 내부에서의 분화의 진전양상, 국가의 정책변화에 따른 노동계급의 대응 방식의 변화 등을 체제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편의 연구는 각기 그들 나름대로 엄밀한 실증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서도 스탈린 시대 노동사를 보는 각기 상당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우선 세 책 가운데 가장 먼저 출판된 필처의 작업은 연구대상 시기의 소련의 노동정책 및 노동관행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이는 필처 자신이 트로츠키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스탈린 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데서 비롯된다. 앞에서 반공주의적인 이데올로기적 집착에서 벗어난 새로운 연구들에 대해 언급했지만, 필처는 강단의 연구자로서는 그리 흔치 않게 좌파사회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의 이 같은 이념적 지향성은 자신의 책에 선명한 빛을 던지면서 그 못지 않게 그림자 또한 드리우고 있다. 필처는 우선 스탈린지배 하의 소련이 사회주의 체제였음을 부정한다. 그가 보기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것은 단지 이름뿐 이었고 실제로 당시의 소련체제가 보여주고 있던 것은 중앙통제적인 관료주의, 폭압적 경찰지배체제였을 뿐이다. 스탈린정권의 정책은 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회 모든 분야, 개인생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체제의 이 같은 기본성격은 산업화과정,

노동정책에도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정권이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노동계급에 대해 취한 정책은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필치는 스탈린 체제하에서 노동계급이 분열되고 원자화됨으로써 정권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더 이상 되지 못하고 말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가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완전히 무력한 순종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필치가 보기에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방식으로이기는 하되 작업과정을 거의 마음대로 통제하고 있었다. 빈번한 전직(轉職), 결근이나 작업장 이탈을 비롯한 작업규율 어기기, 사회주의적 경쟁, 노동돌격대, 스타하노프 운동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제(官制)운동을 사보타지하기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의 경영자 혹은 관리자들도 이 같은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관제운동을 사보타지하거나, 노동자들이 작업목표를 달성치 못했음에도 높은 임금 혹은 상여금을 지급하곤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던 것은 스탈린 정권이 추진한 초고속 산업화 과정에서 심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영자, 관리자들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규율위반, 낮은 생산성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전반적 분위기 아래서는 스탈린 정권이 의도했던 각종 노동생산성 향상운동은 필치가 보기에는 모두 뽀충긴의 종이집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활동 전반의 유기적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데 있다고 필치는 파악한다. 즉 “노동의 구체화”로 인해 개별 노동자들이 개별 부문에서 높은 생산성을 올리더라도 이것이 다른 생산활동의 뒷받침없이 고립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유용한 생산품의 생산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는 다량 생산된 부분품만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치는 스탈린 치하에서 발생한 관제 생산성 향상운동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전체적 경제성장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필치는 이처럼 스탈린 치하의 (나아가 소련 전체의) 생산활동은 부적절한 경제성장계획, 적절한 노동력 공급체계의 결여,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규율의 결여, 낮은 노동생산성 등에서 비롯되는 극도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낭비”(waste)라는 개념으로 특징짓고 있었다.

필치의 이같은 파악방식은 몇 가지 의문을 낳는다. 소련경제가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노동관행이 낭비적이기만 했다면 공업화 정책 초기의 그렇게 급속한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무리 그것이 정부의 대대적 자본투입에 의한 순전한 외형적 성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노동관행이 순전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었다면 이같은 외적 성장도 불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필치는 소련 경제 체제 하에서는 거의 어떠한 성장의

가능성도 전무했을 것으로 여기게 하는 투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별다른 거리낌없이 1932-36년 사이의 경제 사정의 급격한 호전과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작업통제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보아 낮은 생산성의 원흉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필처는 후자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런데 이는 경영자측에 의한 효율적 노동통제가 결여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이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강화가 생산성 증대에 필수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직결되고 있어서, 그 자신의 기본이념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필처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옹호자들의 계획경제 비판을 연상케 하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 볼 때 그의 전체적인 논지는 불세비키는 물질 조건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후 모든 것을 뒤틀리게 진행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멘세비키의 논지를 연상케 한다. 필처가 스탈린 체제 하 산업화 정책의 귀결로 본 것은 결국 강제노동체계의 성립이었다.

블라디미르 안들의 저작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학적인 접근방식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그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비교사회학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필처와 마찬가지로 영국 버밍엄 대학 러시아 동구연구센터(Center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의 소련 산업화 프로젝트 세미나에 참여해 거의 같은 주제, 같은 대상에 대해 연구하였고 바로 이 책도 앞에서 이야기한 필처의 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세미나 작업의 소산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각과 결론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필처가 트로츠키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스탈린 시대 노동계급의 존재방식, 경제체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데 반해 안들은 자신의 이념성을 거의 앞세우지 않고 있으며 20년대 말에서 3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의 소련의 노동정책, 노동관행, 그 생산성 등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현상들을 될 수 있으면 그 내적 논리에 의해 이해해보고자 하는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그는 부분적으로는 연구대상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 예로서, 소련의 노동입법에 의해 형성된 노동조건들은 비교적 진보적이어서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입었다고 평가한다든가, 스타하노프 운동이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굳이 낭비적인 것만은 아니었고 실제 생산성 향상, 노동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면이 있었다고 보는 것, 비밀경찰의 활동이나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가 적어도 산업노동자들에게는 그리 억압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안들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가 소련 산업노동자들의 노동문화, 특히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자들과 경영자들 혹은 관리자들과의 관계, 노동자들의 작업규율 등(요컨대 작업장문화)을 소련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산업사회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작업장문화는 정

치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산업조직 자체에 고유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구조, 노조나 혁명적 이념 등은 공장 내에서의 작업의 사회적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는 시카고의 공장에서나 스탈린그라드의 작업장에서나 (기술적 조건이 동일한 한) 산업노동자의 노동문화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안들의 연구는 각 사회마다 가지는 문화적, 이념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모든 산업사회는 시차는 있되 결국 동일한 과제, 동일한 구조를 가진 (혹은 가지게 될) 사회라고 취급하는 근대화론의 한 아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들이 소련의 특수한 사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또한 연구대상 시기의 소련에서 급속한 산업화계획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연줄에 의해서 작업현장에서나 의식주생활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경향이 만연해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것이 스탈린 시대 계획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안들은 소련의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특징들을 공산주의적 광신성이나 러시아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보는 것도, 스탈린의 변덕의 산물이라거나 사회주의적 본원축적의 필요성에 의해 강제된 현상들로 보는 것도 모두 거부하고 당시 이 나라가 갈등해결의 평화적 수단을 찾아 가는 과정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현상들로 보고 있으며, 이 점에서 이 시기 소련의 산업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보아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안들의 연구는 60년대 미국 주류 사회학계식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스탈린 치하 소련도 구미 사회가 밟은 길을 그대로 밟아 가고 있었으며, 구미사회와 동일한 노동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려 했다기보다는, 산업화 시대라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배경 하에서 자체의 과제를 해결할 길을 모색하고 있던 사회였음을 인정해 주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평가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출신의 쿠로미야는 피츠페트릭 사단 출신(그는 그녀가 가르치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 서평에서 소개하는 책은 바로 그의 학위논문을 보완한 것이다)답게 피츠페트릭의 직접적 영향이 느껴지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그의 저작은 이 서평에서 다루어진 세 저작 가운데서는 가장 짧은 시기, 곧 소련의 산업화 초기인 제1차 5개년 경제계획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 시기의 산업정책 및 노동정책과 노동계급의 존재방식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저작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의 틀은 “계급전쟁”이라는 개념이다. 피츠페트릭의 “계급전쟁으로서의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 as a Class War)이라는 논문제목에서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는 이 개념에 입각하여 그는 신경계 정책 말기의 샤흐트 사건에서부터 30년대 초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변화과정까지를 모두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에 산업분야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들은 산업 엘리트층의 세대교체, 출신계급 교체과정이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여기에서는 새로

운 노동력의 대두에 따른 신세대 노동자들과 구세대 노동자들의 갈등, 노동시장과 노동력통제의 관계 등의 문제도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것 또한 실제로는 노동계급 내에서의 세대교체라는 문제와 상당부분 연결돼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체과정은 쿠로미야가 보기에는 스탈린 정권이 원하고 있던 확고한 정치적 지지세력의 형성과정이었다. 그러나 계급전쟁은 스탈린 정권의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산업화의 추진과정에서 늘 순기능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계급전쟁으로 인해 기술 및 경영 부문의 “부르주아”전문가들이 산업현장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몰려난 것은 산업화과정에 난조를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1930년 말부터는 “전문가 박해” 소동이 서서히 잦아들게 되었다. 쿠로미야는 이를 “질서의 회복”으로 명명하고 있다. 스탈린 정권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으며 전술은 일시적으로 변화한 셈이다.

따라서 피츠패트릭의 경우에도 그러하듯, 쿠로미야도 스탈린 정권에 의한 일련의 숙청작업, 이에 따른 노동자 농민계급출신의 대대적인 지위상승 운동과 그 중단, “부르주아” 전문가들의 복귀 등은 모두 고도로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였던 것으로 파악한다. 스탈린은 산업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일부러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전쟁 정책이 실제로 급속한 산업화의 추진에 기여했을까? 이에 대해 쿠로미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필치가 사회주의적 경쟁, 돌격노동운동 등의 의미를 극도로 폄하하고 있는 데 반해 쿠로미야는 이것이 산업 근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고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젊은 노동자들의 지위상승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한다.

쿠로미야의 계급전쟁 개념은 병리적이고 새디스트적인 현상으로 보이던 스탈린 치하 산업부문의 여러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같은 합리적 이해가 지나쳐 실제로는 스탈린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온갖 폐해들이 “합리화”되는 데까지 이르르는 것은 아닐지? 계급전쟁을 통해 노동계급 출신이 대거 새로운 엘리트층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볼셰비키 혁명의 이념이었던 노동해방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필요없는 것인지? 그러기에는 스탈린 정권에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답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의문을 남겨 놓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쿠로미야는 정권과 노동계급의 상호관계를 연대순으로 착실히 추적하면서 소련 노동사회사 연구의 한 중요한 업적을 제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가 제공해 주고 있는 구체적 통계수치를 포함하여 그의 연구성과는 이 주제에 관한 표준적 준거문헌의 하나로 남으리라고 생각된다.

III. 결 론

스탈린 시대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자국 현대사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 작업에 들어간 러시아 역사학계, 사회과학계에서는 이미 용도폐기되어 버린 것으로 여겨졌던 전체주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론으로 스탈린 시대의 노동사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스탈린 시대에는 강제노동 수용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스탈린 시대 소련은 당국의 공식 선전문구였던 “사회주의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스탈린 시대의 노동자들은 적어도 폭압적인 정권의 일방적 요구에 맹종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비록 노조의 무력화, 노동자들의 독자적, 체계적 정치활동의 장의 폐쇄 등으로 인해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권리는 말살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노동자들은 광범한 사회적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부분적이나마 스스로의 사회적 상승을 달성할 수도 있었고 작업현장에서의 수동적 저항을 통해 체제의 전일적 지배에 항거할 수도 있는 존재였다. 또한 스탈린 치하 노동자들은 동질적인 집단도 아니었다. 노동계급의 내부에는 기술숙련도, 출신배경, 연령, 성별에 따른 다수의 하위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하위집단들은 정부의 정책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것이 또한 각각의 하위집단에 대한 정권 측의 상이한 정책을 유도해 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권의 연구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관한 사실들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밝혀내 주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노동계급 내 성별 하위집단의 문제는 - 비록 필치가 여성노동자 문제를 극히 부분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 세 저작 어느 곳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성실한 학문적 작업은 구체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스탈린 시대 소련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서는 몇 가지 상투적 개념들로 집약되는 편견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착실한 연구성과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러시아 관련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